

## 대하소설의 ‘똥오줌’ 모티프 연구

한길연\*

1. 서론
2. 악인형(惡人型) 인물과 똥오줌 모티프
3. 우인형(愚人型) 인물과 똥오줌 모티프
4. 선인형(善人型) 인물과 똥오줌 모티프
5. 결론: 대하소설의 똥오줌 모티프의 의미

### 1. 서론

만신주(萬身主)가 인체의 각 기관에 벼슬을 주는데 유독 황문(黃門)에게만 벼슬을 내리지 않자 황문이 명산승지에 잠적하여 명철보신했다는 내용의 <만신주봉공신록(萬身主封功臣錄)>이라는 고전소설이 전한다. 이 작품은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당하는 황문을 특화시켜 형상화함으로써 몸을 통한 정치권력의 모순을 보여준다.<sup>1)</sup> 똥오줌 또한 황문과 흡사한 위치에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 조건, 나라, 종교 혹은 기질을 불문하고 아침저녁으로 똥을 누다.”<sup>2)</sup> 이 말은 똥오줌이 인간에게 얼마나 일상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배설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열광적이며, 가장 가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연히 무시당하는 주제”<sup>3)</sup>라는 지적대로, 불결하다는 그 속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만신주봉공신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정병설, 『몸의 정치학: 만신주봉공신록(萬身主封功臣錄)』, 『문헌과 해석』 2000 겨울호, 문헌과 해석사, 2000에서 상론한 바 있다.
- 2) 마르탱 모네스티에, 『똥오줌의 역사』(임현 옮김), 문학동네, 2005, 10면. 위의 내용은 조너선 스위프트가 한 말로 위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재인용하였다.

성 때문에 쉽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학작품에서의 ‘똥오줌 모티프’<sup>4)</sup>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세계상과 인간상을 물질화하는 등의 이례적인 사물, 현상, 개념의 모형을 창조해낸다.<sup>5)</sup> 실제 삶에서의 똥오줌 자체는 통상적으로 추한 것으로서 여겨지지만 문학작품에서의 똥오줌 모티프는 “코믹은 (...) 추를 유쾌하게 만들어 미로 전환시키는 것이다.”<sup>6)</sup>라는 지적대로, 흥미롭고도 파격적인 상황의 연출을 통해 유쾌함을 발산하게 되는 것이다.

기실 소설과 같은 본격적인 문학작품에서만 아니라 속담, 설화 등의 기층장르에서도 똥오줌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한다. 똥오줌 모티프와 관련한 속담의 경우 “새똥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재수 없다.” 등의 부정적 담론에서부터 “똥을 모르고 밟으면 재수가 좋다.” 등의 긍정적인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층이 존재하며, 설화의 경우에도 오줌을 싸서 땅이 패여 섬이 생기게 했다는 설문대할망 이야기,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전설 소생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들통 나자 자살하여 측간신이 되었다는 문전본풀이, 문희가 그 언니 보희의 오줌 싸는 꿈을 사 김춘추의 배필이 되었다는 이야기, 한 여자가 승천하는 이무기한테 오줌을 누었다가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로부터 보복당했다는 이야기,<sup>7)</sup> 똥을 매개로 서로를 골리다가 다시금 화해하여 사이가 좋아졌다는 이야기<sup>8)</sup> 등등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흡사하다. 똥오줌을 불결하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술한 언술들 이면에 친치창조와 관련된 똥오줌 이야기, 똥오줌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 입문의식과 관련된 똥오줌 이

3) 위의 책, 9면.

4) ‘모티프(Motif, Motive)’란 어원상으로는 운동의 근원적인 원인, 예술에서는 창작이나 표현의 기본적인 동기를 의미하지만, 문학에 국한하여 통용되는 일반적인 의미는 문학 텍스트에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정한 요소-가장 작은 서사적 단위, 낱말, 문구, 사건, 기법, 공식-를 가리킨다.(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6, 138쪽 참조)

5) 미하일 바흐친, 『장편소설과 민중언어』(전승희 외 옮김), 창작과비평사, 1988, 386면. 이 책에서는 ‘배설 시리즈’라는 용어로서 똥오줌 모티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6) 카를 로젠크라츠, 『추의 미학』(조경식 옮김), 나남, 2008, 73면.

7) 성기열, 여자 오줌을 밟고 득천을 못한 구렁이,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579-582면.

8) 똥을 매개로 사이가 좋아진 이야기는 『태평한화골계전』, 『어우야담』 등에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야기, 축제와 관련된 똥오줌 이야기, 사랑의 묘약으로 활용되는 똥오줌 이야기, 악마를 물리치는 똥오줌 이야기 등 긍정적인 언술들이 존재함으로써 똥오줌과 관련한 담론들이 다층적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sup>9)</sup>

한국의 고전소설도 예외는 아니다. 똥오줌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똥오줌 모티프로는 <호질>에서 북곽선생이 동리자와 사통하다가 들통 나 달아나는 도중 똥독에 빠지는 이야기, <홍부전>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던 놀부가 중국에는 박 속에서 나온 똥물에 빠지는 이야기, <예덕선생전>에서 엄골자가 똥을 거름으로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 건실하게 살아가는 이야기<sup>10)</sup>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연암소설, 판소리계 소설 외에 대하소설에도 똥오줌 모티프가 등장한다. 상층에서 주로 향유한 대하소설에서는 똥오줌 모티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예상과는 달리, 대하소설 속에도 똥오줌 모티프가 등장한다. 더욱이 대하소설에서는 연암소설, 판소리계 소설보다도 더 다기한 의미망을 형성하면서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하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는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그간 연암소설 등에 관한 논의에서도 똥오줌 모티프에 대해 가볍게 언급되었을 뿐으로, 고전소설 전반에서 똥오줌 모티프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크게 악인형(惡人型)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 우인형(愚人型) 인물<sup>11)</sup>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 선인형(善人型) 인물과 관

련한 똥오줌 모티프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대하소설에서 이러한 똥오줌 모티프가 산출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연암소설, 판소리계 소설 등과의 비교하여 대하소설의 똥오줌 모티프가 지니는 의미를 명확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똥오줌 모티프가 잘 형상화된 <임씨삼대록>, <유씨삼대록>,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 <양문충의록>, <임화정연>, <쌍성봉효록>, <옥원재합기연> 등을 대상으로 전개하기로 한다.<sup>12)</sup>

## 2. 악인형(惡人型) 인물과 똥오줌 모티프

대하소설에서 똥오줌 모티프는 악인형 인물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나온다. 악인형 인물이 악행을 저지르다가 들통이 나거나 다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똥오줌 모티프가 등장하는데, 이 때 악인형 인물은 똥을 썩다거나 똥독에 빠지는 형국으로 그려진다. 똥의 더러운 속성이 한껏 반영되어 똥으로써 그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런데 악인형 인물 간에도 주변적인 악인형 인물의 경우에는 그 악행이 처벌되는 마지막 부분에서 똥오줌 모티프가 나온다면, 핵심적인 악인형 인물의 경우에는 그 악행이 진행되는 중간 부분에서 똥오줌 모티프가 나온다.

㉠ 여성 악인형 인물의 경우를 보면, <쌍성봉효록>에서 교씨가 신분을 속여 임씨 가문에 들어왔으나 친정오라버니와의 대면으로 신분이 들통나는 장면에서 똥을 질질 싸는 장면이 나오고, <임씨삼대록>에서 옥선군주가 개용단(改容丹)을 먹고 설부인으로 변했으나 풍부인 등의 정인(正人)의 정

9) 마르탱 모네스티에, 앞의 책 참조.

10) <예덕선생전>의 똥오줌 모티프는 <호질>과 <홍부전> 등의 똥오줌 모티프와 그 성격상 많이 다르다. <호질>, <홍부전>에서는 위선적인 인물을 풍자하거나 악한 인물을 징치하는 수법의 하나로 똥오줌이 상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예덕선생전>에서는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똥 그 자체가 그대로 노출된다. 그럼에도 <예덕선생전> 또한 똥오줌에 관한 대목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거론하기로 한다.

11) 악인형 인물이 영특하면서 간악한 인물이라면, 우인형 인물은 우둔하면서 본능에 충실한 인물을 말한다. 간혹 우인형 인물이 선인형 인물을 때리는 등의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악인형 인물에 비하면 절대적인 해악을 끼치는 일이 없이 약간의 피해를 줄 뿐이다. 간악하기 때

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악인형 인물과는 달리 우인형 인물은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인물로, 악인형 인물처럼 철저하게 계획적이며 사악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12) <임씨삼대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본 40권 40책, <유씨삼대록>은 국립중앙도서관본 20권 20책, <현몽쌍룡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본 18권 18책, <조씨삼대록>은 서강대학교본 40권 40책, <양문충의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본 32권 32책, <임화정연>은 구활자본 6권 6책(『활자본 고소설전집』 8.9, 아세아문화사, 1976), <쌍성봉효록>은 국립중앙도서관본 16권 16책, <옥원재합기연>은 규장각본 21권 21책을 대상으로 한다.

기 앞에서 본색이 탄로나게 될 상황에 처하자 똥을 질질 싸는 장면이 나온다. 교씨, 옥선군주 등은 둘 다 작품의 핵심적인 악인형 인물로 그들의 수차례의 악행이 진행되는 중간 대목에서 이러한 똥오줌 모티프가 나오고 있다. 이 중 <임씨삼대록>의 옥선군주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시[가짜 설씨라는 뜻, 옥선군주] 냇안을 독커 쓰고 옷 스이로 피도롤 썩혀느허 손의 쥐고 (...) 비슈를 드러 다라드니 (...) 풍부인이 (...) 느으가 칼을 앓고 느상을 다리어 안쳐 왈 그디 돌연이 풍증을 들너느냐 둔전의 발검이 이 윈 닐고 (...) 니 냇안이 병드지 아니시니 그디를 아라보느니 예 안즈 명일 설현질노 진가를 갈허리라 호고 나상을 단단이 잡으 요동치 아니니 옥선이 더 겁혀 썰치고 도라가려 하니 풍부인의 당당흔 정기 당좌혀여 나상을 구지 잡고 안즈시니 간담이 썩노라 아모리 독히 뿌리치나 요동하며 몸을 썩혀 도라가고즈 혼들 잔즈리 티산을 거움 갖혀여 저의 요스흔 괴질이 전혀 헛기운을 타 늦겨늘 흐물며 풍부인의 정기 요인을 들너시니 엇지 호발이나 움죽이리오 죽을 힘을 다하여 문득 몸을 뛰오쳐 나상을 버셔바리고 뛰어다르려 하니 부인이 어히엄서 느상을 먼니 더지고 그 냇슈를 단단이 잡으 안치니 (...) 가설시 죽음이 다 되어 똥을 잘금잘금 흘니고 일신이 어름 갖고 얼골이 찬 지 갖혀여 아모리 흘 줄 모로니 (임씨삼대록 9권 44-50면)

임창연의 셋째부인으로 들어간 옥선군주는 임창연의 첫째부인인 설성염을 모해하기 위해 개용단을 먹고 설성염으로 변신한 뒤, 한밤중에 임창연의 둘째부인인 여부인을 칼로 찌르려 한다. 이 때 여장부인 풍부인이 옥선군주를 다잡고는 내일 아침에 진가(眞假)를 구별하겠다고 말하자 옥선군주는 겁에 질려 사색(死色)이 된 채로 똥을 싸게 된다. 요사스런 술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몸을 빼서 돌아가고자 하나 풍부인의 정기 앞에 꼼짝달싹도 못한 채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다가 급기야는 똥을 질질 싸는 형국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처럼, 임창연의 총애를 얻고자 온갖 포악스런 일을 자행했던 옥선군주는 똥을 싸는 모습을 통해 우스꽝스럽게 변모한다. 그녀의 악행에 대한 일종의 회화화된 징치인 것이다.

이는 악인형 인물이 감옥에 갇힌다거나 처형된다거나 하는 등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과는 또 다른 미감을 선사한다. 똥을 질질 싸는 장면을 통해 독자들은 그동안 악인형 인물의 악행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증오감을 잠시나마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 ‘웃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줌으로써 대상에 대해 느끼는 공포감에서 벗어나 세계를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는 대담함의 전제 조건을 마련해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sup>13)</sup> ‘고소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독자들은 웃음을 머금은 채 이들 악인형 인물에 대한 통쾌한 복수감을 맛보면서 이들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악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는 악인형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하다. 아무리 독중인 악인형 인물이라도 위기의 상황에서 똥을 질질 싸는 모습을 통해 그들 또한 철면피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보통의 인간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똥오줌 모티프는 악인형 인물들의 독하고도 독한 모습 속에 감추어진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교씨나 옥선군주 등은 핵심적인 악인형 인물들로서 그들의 수차례의 악행이 진행되는 중간 대목에서 이런 똥오줌 모티프가 삽입됨으로써 그 긴 악행의 여정 속에서 독자들이 긴장을 풀고 한 번 통쾌하게 웃으면서 쉬어가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똥오줌 모티프는 대하소설의 서사문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② 한편, 남성 악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 또한 여성 악인형 인물과 유사한데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묘사된다. <임화정연>에서 정훈환 화소저를 온갖 모략으로 취하려 했던 지현의 아들 이생은 여사의 출두 아래 심판을 받자 똥을 질질 싸고,<sup>15)</sup> <현몽쌍룡기>에서 양소저 등을 겁탈하

13) 게리 솔 모슨-캐럴 에머슨, 『바흐친의 산문학』(오문석 외 옮김), 책세상, 2006, 743면.

14) 대하소설에서 긴장되는 사건들 사이사이에서 독자들이 웃으며 쉬어갈 수 있게 하는 장치로는 똥오줌 모티프 외에도 농담이나 속임수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 중 똥오줌 모티프는 독자들에게 특히 많은 웃음을 유발하면서 악한 인물들에 대한 통쾌한 복수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5) <임화정연>의 이생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똥에 관한 대목이 나오고 있다. 똥오줌 모티프가 매우 빈번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잘 형상화되어 있기에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러던 박수관은 또 다른 악한인 양세가 놓은 불을 피하려다가 변소에 빠져 똥물을 뒤집어쓰며,<sup>16)</sup> <임씨삼대록>에서 광교란과 사통하던 환옥은 담장을 뛰어 넘다가 미친개에게 쫓겨 똥독에 빠진다. <임화정연>의 이생은 이 작품에서 주변적 인물로 그의 악행이 징치되는 마지막 장면에서 똥오줌 모티프가 등장하는데 반해, <현몽쌍룡기>의 박수관, <임씨삼대록>의 환옥은 각각의 작품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그들의 수차례의 악행이 자행되는 중간 부분에서 똥오줌 모티프가 등장한다. 이 중 <임씨삼대록>의 환옥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교란은 임혹시 드러오나가 하여 반겨 니러노고즈 하더니 환옥이 다라드러 옥슈를 잡고 가슴을 눌너 왈 (...) 교란이 더경실식하여 보니 임성이 아니라 옥면쥬순이 미남지라 니르나 엇지 임성의 천양정일지풍을 당하리오마는 다정흔 춘심이 업지 아나 옥안을 붉히고 답지 못하거늘 환옥이 더회하여 축을 떨히고 교란으로 동숙하니 만고탕즈와 음녀발뽀 동금동와하미 난음흔 정티 불가형언이라 오락지 아나 금계 시비를 보하니 탕즈와 음녀 연연하여 울며 후기를 두고 둔신법으로 총망이 후장을 넘어가더니 일이 공고하여 밋친 기를 맞

같다. 우선 여사가 출두하여 이생을 잡아가는 대목에서 이생이 경계하던 중 복통이 일어나 똥을 싸는 대목이 나온다. “리공자와 흥연을 잡을새 부중 내외의 혼백이 비월하고 공자 복통이 심하여 어린 듯 밋친 거동이 해연하더니 (...) 차사 흥연을 잡고 공자는 결박하여 구박하니 어름 냉슈 먹고 배알튼 위인니 놀나 피를 흘이니 구린내 코를 거사리며”( <임화정연> 15회, 217면(『활자본 고전소설전집』 8, 아세아문화사, 1976)) 다음으로는 여사 앞에 끌려가 문책 받는 장면에서 또 다시 똥을 싸는 대목이 나온다. “머리를 싸에 박고 쇼래를 삼켜 우다가 복통이 있서 설사하던 차에 찬곳에 엮대엮스니 똥이 급하야 이러나려 하매 아역의 쇼래를 질러 꾸지스니 리생이 불시에 나오는 똥을 참지 못하야 똥을 싸니 구린내 진동하는 지라 좌우 제인이 코를 싸고 멀리 피해 서며 여사로부터 제 관원이 관대사매를 드러 닳을 가 리오고 급히 쓰러내라 하니”( <임화정연> 15회, 218-9면(위의 책)).

16) 박수관의 경우에는 단지 박수관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친마저도 함께 변소에 빠져 분즙(糞汁)이 온몸에 가득한 양상이 전개된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양세 거긔 말 아닌 줄 알고 크게 짓겨 이날 반야의 슈관의 집 스면의 불을 디르니라 (...) 기모 쇼시 줄걸의 썬여 내똥다가 허리를 썬고 얼골이 썬어져 류혈이 낭즈흔 중 기왜 썬여 눈의다 질니니 냥안을 부뽀고 ‘이고’ // 슈관이 내 어뽀 죽겠다’ 하니 슈관이 드리다라 붓드러다가 뇨노라 하니 황망등 썬즈흔 돌브리의 노호니 술이 버셔디고 기름이 흐르니 흑독히 쇼리 질너 왈 이 돌이 불이 다투 돌이라 하니 슈관이 도로 엮고 내똥다가 측간 슈치의 썬져 양인이 흡구 구으려 만신의 분즙이 다 즐기고 분취 가득하니 슈관이 겨유 괴어나서 어미를 쓰으려 노변으로 내다르니 슈관은 적신이오 쇼시는 겨유 속웃만 가리뽀터라”( <현몽쌍룡기> 8권, 31-33면)

는 썬독의 업드러져 억기를 물니고 급히 닷더니 썬간의 썬져 만신의 똥을 흘니고 천방지방 본부로 도라와 급히 옷술 셔룻고 몸을 씨슨 후 만신이 알푸를 건디지 못하여 침석의 구러져 디통하니(임씨삼대록 25권, 8-10면)

환옥은 자신의 누이 연랑과 작당하여 임씨 집안의 며느리인 성소저 등을 모해하려고 온갖 술책을 부렸으나 결국 실패한다. 성소저 등을 검탈하여 한껏 욕정을 풀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던 찰나, 마침 임재홍의 아내이자 자신의 누이와 한패인 광교란의 처소를 지나가던 환옥은 그 처소에 돌입하여 광교란과 사통하게 된다. 남편으로부터 냉대를 받던 광교란은 남편이 아닌 외간남자의 출현에 놀라지만 그간 외로웠던 데다가 미남자인 환옥의 모습을 보고는 정이 동하여 사통하게 되는 것이다. “음녀발뽀(淫女潑夫) 동금동와(同衾同臥) 하미 난음(亂淫)흔 정티 불가형언(不可形言)이라”는 서술자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 유부녀와 탕자의 불륜행각이 낭자하게 벌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환락 뒤에 곧이어 환옥은 담을 넘다가 미친개에게 쫓겨 똥간에 빠져 온몸이 똥 범벅이 된다.

이처럼 선인형 인물들을 모해하려 온갖 악행을 꾸미고 또 유부녀인 광교란과 불륜행각까지 벌인 환옥에게 내려지는 벌은 똥독에 빠져 온몸을 똥으로 뒤집어쓰게 되는 일이다. 이와 흡사한 상황이 박수관 등의 악인형 인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남성 악인형 인물과 관련한 이러한 똥오줌 모티프 또한 여성 악인형 인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들로 하여금 악인형 인물에 대한 그간의 긴장감과 증오심을 풀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sup>17)</sup> 비록 이후에도 환옥의 악행은 계속되지만 그러한 악행의 중간 부분에 삽입된 똥오줌 모티프는 한 템포 쉬어가듯 독자들에게 통쾌하게 웃으면서 긴장감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17) 배설적 풍자를 통한 ‘카타르시스-정화’에 대해서는 『율리시즈』의 작가 조이스가 수행한 바 있다. 조이스는 영국의 야만성을 규탄하거나 아일랜드의 사회 모순을 비판하는 데 배설물로 풍자하였다. 이러한 배설적 언어를 구사한 것은 배설물에는 세정력이 있다는 그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배설적 풍자를 가함으로써 자신의 울분을 ‘카타르시스’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억압적인 요인들이 하루 빨리 ‘정화’ 내지 ‘제거’되기를 바라는 그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한다.(이에 대해서는 진선주, 『『율리시즈』에 나타난 배설적 풍자의 정치학』, 『제임스 조이스 저널』 7권 2호,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2001, 99면 참조)

요컨대, 악인형 인물들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는 그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 통쾌하게 조소하기라도 하듯, 그들이 똥을 질질 싸는 열간이나 똥독에 빠진 바보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그간의 긴장을 풀고 한껏 웃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핵심적인 악인형 인물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중첩되는 악행의 중간 부분에서 독자들이 유쾌하게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장치로서 이들 똥오줌 모티프는 기능하고 있다.

### 3. 우인형(愚人型) 인물과 똥오줌 모티프

우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 또한 대하소설에서 종종 나타난다. 남성인물과 관련해서는 <옥원재합기연>의 이원외 등에서 나타나며, 여성인물과 관련해서는 <유씨삼대록>의 왕씨, 순씨 등에서 나타난다. 이들 우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는 그들을 더욱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의 탐욕 혹은 본능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 먼저 남성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옥원재합기연>에서 대표적인 소인형 인물로 나오는 이원외는 죽대 없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인물로, 악인형 인물이기보다는 우인형 인물에 가깝다.<sup>18)</sup> 그는 왕안석의 아들인 왕방과 자신의 딸과의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똥이 든 음식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18) <옥원재합기연>의 이원외가 전형적인 악인형 인물과 차별되는 소인형 인물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다.(정병설, <옥원재합기연>: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2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89면;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59-63면) 그런데 본고에서 ‘소인형 인물’이라는 용어보다 ‘우인형 인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옥원재합기연>의 이원외와 같은 인물형과 함께 <유씨삼대록>의 순씨 등의 인물형도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씨삼대록>의 순씨는 소인형 인물이기보다는 예의격식에 구속되지 않은 채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인물로서 우인형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따라서 이원외와 순씨 등의 인물형을 두루 포괄할 수 있는 개념어로 우인형 인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외 집이 본디 가음열터 난지흐미 병되어 찬비를 아니하고 혹 사름이 주는 산히지물로 프라 도늘 민드더니 근일의 더욱 왕가의 빙물을 일코 니석추호 하여 도석의 죽을 먹더니 그득흔 진슈를 만나매 혼 입의 드러 너티 못흐물 애드라 저를 드러 어즈러이 먹으며 강똥의는 니활흔 분슈를 석고 간육의는 견마의 강분을 밋히 담아 진슈를 들석이매 본상이 현누하니 황황이 단식홀 적 악취 동호이고 마시 참혹호되 한님[왕방]의 노를 만날가 저허 이러타 말을 못호고 또 물너노티 못호여 이에 우희 거술 굴최여 먹고 술을 바다 니러 절호고 잔을 드러 우희 거품을 써 버리고 감음호매 (<옥원재합기연> 3권)

이원외의 딸인 이현영은, 부친인 이원외가 소세경과의 혼사를 파기하고 자신을 권력가에 시집보내려 하자 소세경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몇 번이나 자결을 시도한다. 다행히 왕안석에 의해 목숨이 살아나게 되는데, 왕안석은 이현영을 자신의 양녀로 삼아 소세경과의 혼사를 이뤄주려 한다. 그런데 이원외는 왕안석의 아들 왕방과 남들 몰래 이현영과 왕방과의 혼사를 도모하고, 이런 기미를 알아챈 왕방의 부인 채씨는 이원외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적국인 안씨를 음해하기 위해 이원외의 음식에 똥오줌을 넣은 뒤 이를 안씨의 소행이라 돌린다. 이런 와중에서 이원외는 음식에 똥오줌이 든 것을 알면서도 왕방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이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똥오줌 모티프는 일단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똥오줌이 든 음식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허둥지둥 먹어대는 이원외의 모습에 독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 우스꽝스러움에 저절로 웃음을 머금게 된다. 이는 곧 이원외의 어리석은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와 직결된다. 똥이 든 음식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권력가와 사돈을 맺어보려는 이원외의 욕심 때문에 이현영이 또 다시 자살하는 형국에 처하게 되는데, 자신이 딸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권력에 눈이 먼 우인형 인물의 아둔하고 속물적인 면모가 똥오줌으로 환치되면서 독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비웃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원외와 같은 우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는 탐욕스러

우면서도 염치없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어리석음을 비웃게 만든다. 이욕을 위해 그 어떤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똥오줌 모티프를 통해 선명하게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② 한편, 이러한 똥오줌 모티프는 우인형 여성과 관련해서도 등장한다. <유씨삼대록>을 보면 지각없는 행동으로 집안 식구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던 왕씨는 자신을 냉대하는 남편 유현에게 똥물을 뿌리고, 못생기고 지각없는 행동으로 집안 식구들마저 ‘내놓은’ 인물인 순씨는 여자들끼리 소연(小宴)을 열 때 방귀를 마구 끼다가<sup>19)</sup> 술을 잔뜩 먹고는 적국인 박씨를 난타한 뒤 태연히 누워 잠을 자며 위로는 음식을 토하고 밑으로는 분즙(糞汁)을 흘린다. 한 명은 남에게 똥물을 퍼붓는 것이고 한 명은 자신이 똥물을 흘리는 것이지만, 둘 다 똥오줌과 관련하여 거리낌 없이 행동함으로써 주변사람들을 당황케 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이 중에서 순씨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순씨) 불의에 혼 났더 급흔 기침을 인하여 통긔흔는 소리 난간이 터디는 듯하니 좌둥이 처음은 다 무숨 이상흔 변인가 놀나더니 이윽고 분취 단동하니 만좌 제인의 향긔를 거스리는디라 제부인이 일시의 취슈를 드러 코흘 그리오니 일노빠 이 잔치 일흠을 엄비연이라 하더라 (...) 순씨 주식을 보매 두 손을 그로 들고 그 즈미를 줍잡하여 슈륙진찬이 상의 그득하고 마시 아름다오물 도히 녀여 일시의 못 다 먹으물 빗바 프른 입시울을 들추며 흡긔 후그러 너허 일시 간의 쯔 빼버 다 먹으니 (...) 취둥의 미친 므음이 나는 고로 브디블각의 넓더나 박쇼져를 쓰어 업디르고 압히 노흔 상을 드러 난만이 치며 (...) 도부인이 쇼왈 “이러나 저러나 불셔 디난 일이니 의논하여 끌디 업스디라 아모커나 엇더케 취흔연논고 보고 시브니 순시를 브르라” 시네 승명하여 가더니 이윽고 도라와 웃고 말을 아니하니 도부인이 고이히 녀여 므룬디 시네 또 더치 아니코 입을 빼고 웃는디라 성의빅 당즈 건이 나히 팔 세라 도부인이 명하여

순시를 브르라 하니 건이 썰니 나아가 본 즉 순시 대취하여 것구러더 음식을 무수히 구토하고 누어 즈를 깊히 드러 코 고으는 소리 우레 꺾으니 건이 크게 놀나고 우이 녀여 즉시 도라와 도부인고 고왈 “순슈되 대취하여 인스물 모르니 브르디 못하고 입의는 음식이 그득이 나오고 아러로는 분취 흐르더이다” 좌둥이 대쇼흔디 성의빅이 정식 왈 “건이 으쇼의 요망흔 말을 하니 즈딜의 도리 아니라 비록 유이나 경계 아니미 가티 아니이다” 부인이 쇼왈 “내 아히는 우은 말 ” 나 너의 거동이 내 역시 춤디 못하니 건이 엇디 웃디 아니리오” 혹시 브야흐로 우어 굴오더 “건의 말을 형당이 취흔시니 쇼테 절도흔를 춤디 못히리로소이다 웃디 아닌 즉 인정이 아니라 건의 일이 덕하니이다” 성의빅이 미쇼 브답이러라(<유씨삼대록> 7권, 45-55면)

유세필의 첫째 부인인 박씨가 좌천하는 부모를 따라갔다가 도적떼를 만나는 등 온갖 고생을 겪은 뒤에 다시 무사히 시댁으로 돌아오자, 동서들이 이를 축하하는 작은 잔치를 연다. 이때 유세필의 둘째 부인인 순씨는 이 잔치자리에 이르러 먼저 큰 소리로 “통긔(通氣)” 즉 방귀를 끼면서 “분취(糞臭)” 즉 똥냄새를 내뿜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코를 막게 하는 우스운 상황을 연출한다. 이 잔치를 ‘코를 막는 잔치’인 “엄비연(掩鼻宴)”이라 명명한 것도 또한 순씨 때문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고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그녀는 적국(敵國)인 박씨를 질투하여 난타한 뒤에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잠을 자버린다. 이 때 조부인을 비롯한 집안사람들은 순씨의 행실을 그르다 하면서도 순씨가 어떻게 있는가 자못 궁금하여 시녀로 하여금 그녀의 동정을 살피게 한다. 그러나 시녀들이 웃기만 할 뿐 감히 대답하지 못하자, 유세기의 장자인 유건에게 순씨의 모습을 보고 오게 한다. 어린 유건이 순씨 숙모의 입에서는 음식이 나오고 아래로는 분수(糞水)가 나온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집안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한다.

이를 통해 우인형 여성인물 또한 앞서 우인형 남성인물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희화화됨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씨의 생김새도 우스꽝스러운 뿐만 아니라,<sup>20)</sup> 우스꽝스러운 행실로

19) 방귀는 똥오줌은 아니지만 똥냄새를 풍긴다는 점에서 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또한 넓은 의미의 ‘똥오줌 모티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순씨의 못 생긴 외모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

인해 더욱 더 회화적인 인물로서 도드라진다. 순씨는 마치 웃음을 주기 위해 창조된 인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잔치자리에서 큰 소리로 방귀 끼며 구린내를 진동하게 한다든지, 대취한 채로 똥오줌을 싼다든지 하는 등의 과격적 행동을 통해 그 우스운 면모가 극대화되면서 주변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그런데 순씨와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 대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녀를 비웃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과 예절에 구속되지 않고 배설 행위를 즐기는 그녀에 대한 주변인들의 관음증적인 시선도 감지된다. 순씨는 본래 그 우스운 행실로 인해 본래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술에 대취한 채 박씨를 난타한 뒤 처소에 돌아가서의 일을 모두들 궁금해 한다. 잔치자리에서도 큰 소리로 방귀를 꺼대면서 탐식하고 탐주(貪酒)했던 그녀가 처소에 돌아가서 할 일을 짐작했을 터인데, 집안 식구들은 이를 자못 궁금해 하며 직접 확인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시녀를 통해 알아보고 시녀가 부끄러워 차마 대답을 못 하자 또 어린아이를 시켜 알아본다. “대취(大醉)하여 것구러더 음식을 무수히 구토(嘔吐)하고 누어 줌을 김히 드러 코 고으는 소리 우레 궂호니”, “순숙씨 대취하여 인스틀 모르니 브르디 못호고 입의는 음식이 7득이 나오고 아리로는 분취(糞水) 호르더이다”라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순씨는 배설 행위 자체를 만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느긋하고 여유롭다. 먹고 싸는 행위와 관련하여 순씨는 좀처럼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순씨의 이러한 행동을 전해 듣고는 집안식구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를 말하고 또 말하면서 즐거워한다.

이처럼, 주변사람들이 순씨가 박씨를 난타하는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도 순씨를 보면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은 단순히 회화화된 순씨의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껏 똥오줌을 발산하는 그 호탕함에 대한 호기심어린 시선일 수도 있다. 이는 왕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유현에게 똥물을 퍼붓자 유현 또한 왕씨가 한 짓임을 알고 웃어버린다. 그 거리낌 없는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어이없어 하며 웃게 되는 것이다.

이런 대목들은 통해 볼 때 대하소설에서 우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는 한껏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면서 금기시된 터부를 해체함으로써 주변사람들의 금지된 욕망을 대리 발산케 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설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숨겨야만 하는 것이라는 금기를 깨고 마음껏 이를 즐기는 우인형 인물을 통해 주변인들은 그들의 억제된 욕망을 대리 충족하고 있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우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는 그들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가운데,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도 인간의 솔직한 본성을 발산하는 장치로도 기능한다. 우인형 인물의 탐욕스런 면모가 똥오줌으로 환치되는가 하면, 인간의 터부시된 본능이 이들을 통해 대리 발산되고 있다.

#### 4. 선인형(善人型) 인물과 똥오줌 모티프

대하소설에서는 단편소설에서와는 달리 선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가 제법 등장하고 있다. 여성인물의 경우 악인형 인물을 징치하기 위한 방책으로, 남성인물의 경우에는 타인의 그릇된 행실을 깨우치거나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으로 똥오줌을 활용한다. 이는 앞서 악인형 인물들이 똥오줌에 의해 우스꽝스럽게 징치되고 있는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똥오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먼저 여성 선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를 살펴보면, 대하소설에서 여성 선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사건은 흔치 않다.<sup>21)</sup>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양문충의록> 등에는 똥오줌과 관련한 사건들이 제법 비중 있게 그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양문충의록>에서 철소저는 이미 양백경과 정혼한 사이인데, 철소저의 이웃에 사는 왕후

(醜貌)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에서 상론한 바 있다.

21) 이는 선인형 여성인물들 즉 여주인공들의 순결하고 정숙한 면모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의도라 보인다.

관이 그녀를 사모하여 납치하려 하자 그녀는 미리 준비한 똥독에 왕후관을 빠지게 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난다.<sup>22)</sup> 앞서 살펴본 악인형 인물들이 패륜적인 행위의 대가로 스스로 똥을 싸거나 우연찮게 똥독에 빠지는 양상과는 달리, 선인형 인물에 의해 악인형 인물이 똥독에 빠지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철소저는 여장(女裝)한 채 자신의 시녀로 들어오려는 왕후관이 남자임을 한눈에 간파하고 모친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시녀로 들이지 않는 등 주체적이고 지각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후에도 그녀는 왕후관이 계속해서 일을 꾸밀 것을 짐작하고는 미리 방비한다.

일일은 모든 시인 중 현잉 등 숨인을 가르쳐 제노로 하여금 철하의 큰 독을 못하고 그 속의 전똥을 만히 쳐 너희라 하니 제노와 시녀 등이 괴히 녀이나 큰 독을 셔너홀 못하고 모든 시비 등은 다 와 여츰하게 하니 (<양문충의록> 2권, 17면)

그녀는 자신의 심복인 현잉 등의 시비에게 자신의 처소 아래 큰 독을 서너 개 묻고 거기에 모든 시녀들이 와서 볼일을 보게 한다. 왕후관이 빠질 함정인 똥독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다. 이에 월장하여 철소저를 겁탈하려고 득의양양해 하던 왕후관은 철소저의 침소로 다가가는 순간 똥독에 빠지는 수모를 겪는다.

담을 넘어 슬피미 먼니셔부터 누각이 뵈더니 갖가이 보미 누각 형상이 칙봉 곳고 화원이 머리 슈빅보나 하니 겨유 누 으리 님하여 바라보고 드되미 큰득 몸이 썩지니 깊은 함정이로되 속이 독속 곳하여 슴이 혼 번 든 후는 날 길이 업셔 던지 아득하며 함 중의 분즙이 느리 쓰이며 만신의 가득히 분즙이

22) <양문충의록>에서 철소저가 자신을 겁탈하려는 왕후관을 똥독에 빠뜨리는 장면은 선인형 여성인물뿐 아니라 악인형 남성인물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악인형 남성인물들이 다른 악인형 인물에 의해 혹은 우연찮게 똥독에 빠지는 앞서 3장의 사건과는 달리 여기서는 선인형 여성인물의 주도적인 계획에 의해 악인형 인물이 똥독에 빠지는 양상이 전개되기에 선인형 여성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니 왕성이 착급하고 청하 냥인을 불너 구하라 호고져 하나 소리 곱하면 누중 슴이 알가 두려 몸을 쇼쇼쳐 나고져 분용흔들 독속이 너르지 아나 혼 번 몸이 것구려진 후는 다시 운동치 못하고 존 쏹과 온곳 버러지 나리 쓰이니 일신을 움죽이지 못하여 오직 계교의 속은 줄 씨다라 눈이 멀거하니 덩신이 업더라(<양문충의록> 2권, 16면)

왕후관은 멀리 철소저의 침소가 보이자 기대에 가득 차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똥독에 빠져 온몸을 똥과 벌레로 뒤집어쓴다. 온갖 계략으로 철소저를 겁탈하려던 왕후관은 도리어 철소저의 지략에 속아 똥독에 빠지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사대부가 여성이 자신을 겁탈하려는 탕자를 혼쫌내는 장면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여성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주변에 흔히 있는 똥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준다. 특히 똥독에 빠진다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껍이나 치욕스러울 수 있는 것이기에 자신을 겁탈하려는 상대 남성에게 통쾌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

㉒ 선인형 남성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똥오줌을 먹거나 먹으려는 사례이고, 둘째는 자신과 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 똥오줌을 대화 중에 언급하거나 실제로 똥오줌을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사례이다.

㉒-1 먼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선인형 인물이 똥물 등을 먹거나 먹으려 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흥몽쌍룡기>에서 태자소부가 된 조성은 태자의 해이해진 모습을 보고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변소의 똥물을 가져와 마심으로써 태자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도록 만든다. 한편, <임씨삼대록>에서 설연창은 자신의 아들 설희광이 아무 연고 없이 그 아내 임월혜를 박대하다가 임월혜가 요인의 무리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sup>23)</sup> 자신이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 하면서 똥물을 먹으려 함으로써 설희광에게 잘못을 일깨우려 한다.<sup>24)</sup> 비록 실제로 똥물을 먹었는가 먹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인물 모두 주변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실책이라 자책하면서 똥물을 먹음으로써 주변사람을 훈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중 실제로 똥물을 먹는 <조씨삼대록>의 조성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츠시 조상셔[조성]의 직품이 참지정스의 태즈태부를 겸하여시니 (….) 일일은 태지 쇼환으로 더브러 유희호사 상하 태면이 업고 상적흔 봉위 되었거늘 태뷔 드러와 추파를 나초고 스비를 맛츠미 태지 의디를 궂초시고 돛 밧기 나와 지비호시고 좌를 덩호시매 태뷔 읽으신 글을 외우시고 다시 비호시물 청호디 태지 원러 태부의 올 썩 머러다 호사 일즈를 펴보디 아나 계신디라 차마 못 읽엇노라 못호샤 스스로 총명을 미더 짐작으로 외오려 호나 엇디 통호리오 두어 줄이 못호여 막혀 면홍여취호여 고개를 드디 못호시거늘 태뷔 소모를 벗고 던하의 느려 성상계신 정던을 바라 고두 샤죄 왈 신이 폐하의 지우를 저바려 춘궁이 혹을 폐호시고 네를 일호시니 이 다 신의 죄라 이제 춘궁 면전의셔 벌을 먹어 죄를 속호리이다 츄슈 일괴를 써오라 호여 들고 낮 빗출 덩히 호고 썩러 마시거늘 (….) 태지 감동호샤 왈 츄후란 그르미 잇거든 스스로 미를 가져 선성의 죄벌을 바드리이다호고 니러 비샤호신대 태뷔 년망이 담뵈 왈 이제 던해 또 그르미 계시거든 신이 스스로 형벌의 나아가 죄를 바드리이다 태지 더욱 경동호샤 츄후는 인덕을 닷그시더라 (<현몽쌍룡기> 12권. 38-42면)

상서 조성은 참지정사에다 태자소부의 벼슬을 겸하였는데, 어느 날 태자

23) 설연창 등은 임월혜가 요인(妖人)의 무리에 의해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위기의 순간 위진군 등이 임월혜를 구해내어 선계에 안전하게 하고 임월혜 대신 짚인형을 임월혜 모양으로 만들어 시신처럼 만들어 놓았을 따름이다. 설연창은 이 사실을 모르고 떠느리인 임월혜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통곡하게 된다.

24) 설연창의 경우에는 똥물을 마시려는 순간 그 모친이 그릇을 앗아 그 똥물을 대신 먹으려하자 어쩔 수 없이 이를 그만둔다. 그렇기에 설연창은 조성처럼 똥물을 먹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설연창이 똥물을 먹으려는 극단적인 시도를 감행함으로써 자신의 아들을 뉘우치게 하려 했던 점은 조성의 경우와 흡사하다.

가 아랫사람들과 어울려 친구처럼 놀면서 태자로서의 체통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제로 내놓았던 대목을 한 구절조차 외지 못하는 상황을 목도한다. 조성은 이 모든 것이 태자를 잘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죄라고 자책하면서 “츄슈(廁水) 일괴(一器)” 즉 뒷간의 똥물을 한 그릇 가져와 마신다. 이에 감동한 태자가 잘못을 뉘우쳐 학문과 인덕을 닦게 된다. 이는 <임씨삼대록>의 설연창의 경우도 유사하다.

기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 자신을 스스로 매질한다거나 하는 방법 등은 익히 알려진 예인데, 대하소설에서는 이보다도 더 극단적인 처방의 하나로 스스로 똥물을 먹는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물건의 대표적 예인 똥물을 먹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정도(正道)로 들어서게 만들고 있다. 이는 앞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똥이 든 더러운 음식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인형 인물 이원외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선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는 ‘극기치인(克己治人)’의 한 양태로서 활용되고 있다.

[2]-2 다음으로 자신과 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농탕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관계를 개선키 위해 똥물 등을 언급하거나 실제로 오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대화상으로만 똥오줌을 언급하는 경우와, 실제로 똥오줌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는 <임씨삼대록>에서 설희광이 자신을 놀리는 처가의 처남들에게 똥물도 줄 수 없다고 농담하는 대목에서, 후자는 <조씨삼대록>에서 조유현이 처가에 갔을 때 자기 부부의 잠자리를 규시하는 처남에게 오줌을 갈기는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똥오줌 모티프는 전자와 후자를 막론하고 대개 아내와 불화를 겪던 남 주인공이 아내와의 갈등이 거의 해소될 무렵 처가에 갔을 때 처남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중 실제로 똥오줌이 등장하는 <조씨삼대록>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정공이 부인으로 더브러 익셔[조유현]의 동지를 알고져 호미 츄즈 운

기 능려흐므로 규스혀여 알외라 하니 정한림[정운기]이 괴로이 허리를 굽습구려 머리를 숙여 드르대 혼 말을 못 드르니 정히 굽겨워허더니 어시[조유현] 창을 살피며 그림짓 은은흔지라 정성인 줄 짐작고 속이고져 하여 부지불각의 문을 밀쳐 쇼변을 누미 정혹시 말을 드르라 하고 춤착하여 창하의 숨었다가 난대업슨 물이 오월 장수 흐르 듯 머리로부터 낮가지 흘러 입의 드러가니 쁘고 지린나 가득흔지라 정이 급히 놀나 쇼리 질너 왈 “무상흔 놈이 엇지 이리 하나뇨” 조성이 원비를 늘히여 정한림을 가비아이 잡아 즈기 썩를 글너 단단이 결박하여 노호며 왈 “상부 후문의 내외 격결허거늘 어디로셔 도적이 드렸뇨 빨리 쓰어 밧기 가 처치하라” 유모 시비 창 밧기서 조다가 정 도적만 너겨 일시의 대답하고 다라드니 (...) 정성이 썩를 글너 들고 도로혀 어스를 미려 하니 어시 단연 부동하고 손으로 밀치며 쇼아 궂치 하슈를 못느니라 이찌 정사인 스 형데 정당으로 지나는 길히 미제를 보려고 일시의 드러오니 어스는 단좌하고 정한림은 분분이 어스를 미려 혼느니라 잣바져 구을거늘 사인 등이 이 거조를 무르니 어시 가르쳐 왈 “정형이 아니 고이하나 공연이 상하의 업대여 나의 쇼변을 누는데 오로지 밧고 아모 쇼리나 하여시면 알거술 무상흔 욱만 하고 말을 아니하니 잡아미여 도적으로 다스리즈 허더니 글너 노호니 도로혀 날을 잡아미려 하다가 밀치미 잡아젓시니 이제 형데 등이 모다시니 내 무손 죄 잇느냐 이제 오 형데 모하시니 날 궂튼 약호 니 속슈허려니와 대장부 형신이 일월 궂트리니 남의 부부의 방을 엿보려 업대였다가 욱을 보와 뺀다” 하니 모다 웃고 한림의 오솔 보니 머리부터 모다 져졌느니라 일시의 박쇼하고 왈 “똥뽀 놈아 이거시 흘 일이나” 한림이 우으며 분분이 날쳐 왈 “하 분하니 우리 형데 오 인이 저 혼 놈을 결박하고 쇼변을 먹이리라” 정사인 등이 호히를 즐기는 고로 일시의 어스를 잡아미려 하니 (<조씨삼대록> 5권, 66-72면)

조유현이 타인의 참소로 인해 아내 정소저를 박대하던 중 오해가 풀리고 처가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자, 장인인 정공이 자신의 아들 한림 정운기로 하여금 이들의 침소를 규시(窺視)하게 한다. 정운기가 허리를 숙이고 창밖에서 누이 내외의 동정을 몰래 살피던 순간, 조유현은 정운기가 자신들의 침소를 엿보는 것을 알고는 일부러 오줌을 누는 척하면서 정운기를 오줌범

벽이 되게 만든다. 온몸 전체가 오줌범벽이 된 정운기는 짜고 지린내 나는 오줌이 입으로까지 흘러들어오자 소리를 지르지만, 조유현은 한 수 더 떠 정운기를 도둑이라고 하면서 하인들을 시켜 결박하게 한다. 이후 도둑이 정운기인 것이 밝혀지고 역으로 정운기가 조유현을 결박하려는 찰나에 정운기의 형제들이 지나가다가 이 가관을 목도하게 된다. 전말을 전해들은 정운기 형제들은 크게 웃으면서 조유현을 결박하고는 소변을 먹이려 실랑이를 벌인다. 조유현이 정운기 형제 다섯 명을 다 제치고 소변을 먹이려는 데서 벗어난 뒤에도, 이들은 이때의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농담을 나눈다. 조유현은 남의 침소를 엿보는 정운기의 나쁜 행실을 군자인 자신의 소변을 먹여 고치게 했다고 농을 치고, 정운기 형제는 조유현이 쾌악스럽다 놀리면서도 그 능청스러움을 사랑하면서 함께 잘 지내게 된다.

오줌과 관련한 이러한 한 바탕의 호쾌한 사건을 계기로, 그간 정소저의 일로 인해 사이가 서먹했던 조유현과 정운기 형제는 급속히 가까워진다. 단지 처남들과의 관계가 호전될 뿐만 아니라 이런 호쾌한 분위기를 이어서 조유현은 아내인 정소저와도 결혼 3년만에 처음으로 동침을 한다. 그리고 장인인 정공과도 사이가 돈독해지는데, 이 때 장인인 정공과의 사이에도 소변과 관련한 농담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친밀해지는 장면이 정운기 형제와 조유현 사이에서와 흡사하게 반복되어 형상화된다.

정공이 조씨 가문을 내방했을 때, 그는 조유현의 부친인 초공과 그 백부(伯父)인 진왕 등에게 조유현과 자신의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오줌 사건의 전말을 들려준다. 이에 진왕 등이 웃으면서 조유현에게 만약 악장인 정공이 침소를 규시하러 왔다면 어찌 했을 것이냐고 묻자, 조유현은 민망해 하면서 대답을 못 한다. 정공은 그런 사위의 모습을 더욱 사랑스러워하면서 조유현이 자신의 다섯 아들을 다 이기는 힘이 있으면서 이렇듯 수줍어한다며 농을 걸자, 진왕은 조유현의 지금의 단중한 행실을 보건대 정공의 말이 허언일 것 같다고 되받아친다. 그러자 그 동안 가만히 있던 조유현도 정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농담을 좋아한다 하면서 과장된 소문이지 자신이 처가에 가서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 말한다. 정공 또한 조유현이 민망해 할까봐 자신이 과장해서 말한 것이니 모두 없었던 일로 치워버리자고 말한다. 그러자

초공은 정공이 어른의 체면으로 아들을 시켜 사위의 신방을 구시하게 한 것은 군자의 행실이 아니니 군자의 오줌을 먹여 군자가 아닌 사람들을 가르친 자신의 아들이 옳다 하면서 악장인 정공에게도 오줌을 먹여 가르치라고 시킨다. 모든 사람들이 깔깔 웃는 가운데 조유현 또한 두 뺨에 웃음을 머금자 정공은 조유현의 손을 잡고 조유현이 자신에게 오줌을 먹이라는 초공의 말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위는 반자(半子)이니 결코 부친의 명이라도 받들지 못할 줄 안다고 너스레를 떠다. 조유현 또한 미소를 짓고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모두 웃게 된다.<sup>25)</sup>

그간 쌓여있던 갈등의 응어리들이 이 소변 사건 하나를 계기로 유쾌하게 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우인형 여성인물들이 자신을 냉대하는 남편에게 똥오줌을 뿌리는 등의 우스운 행실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으로, 갈등을 녹여내는 윤희유로서 똥오줌 모티프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조씨삼대록>에서는 똥오줌과 관련한 모티프가 인물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씨삼대록>의 설희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혼단(迷魂丹)에 빠져 아내 임월혜를 박대했던 설희광은 처가에 이르러 자신을 에워싼 처남들에게 똥물도 줄 수 없다는 농담을 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그간 어색했던 관계를 풀게 된다.

이처럼 똥오줌 모티프는 선인형 인물들 간의 유쾌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된다. 똥오줌과 같은 배설물은 썩 더러운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수면 위에 올려놓았을 때 더욱 농익은 대화가 가능하면서 친숙한 관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줌을 갈기고 이를 뒤집어쓰는 행위를 통해 그간의 묵은 감정들을 씻어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양상은, 똥오줌 모티프가 지니는 생산적인 의미와 연관이 깊다 할 수 있다. 희극적 해체 작업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카니발적 웃음과 관련하여 “카니발적 상징에서 격하는 언제나 적극적인 제스처, 즉 땅으로 끌어내리기와 이를 통한 갱신과 재잉태다.”<sup>26)</sup>라고 논한 바호친은, 특히 “똥 퍼붓기와 오줌 속에 빠뜨리기” 등의 배설물 퍼붓기와 관련하여 “카니발적 모욕의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는 배설물 퍼붓기인데 (...) 이 행위들은 땅속에 뿌려지는 씨와 마찬가지로(웃음의 차원에서) 파헤쳐진 무덤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한 줌의 잔디와 같다.”<sup>27)</sup>라고 비유한 바 있다. 이런 논리대로, 대하소설에서 선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는 농담하고 호쾌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인물들 간의 묵은 앙금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하는 자양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실 여러 민족들에게서 똥오줌이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등의 입문의식에 사용되었다. 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통과 의례 때 개똥을 발랐으며,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결혼식에서 분뇨의식을 행하였고, 죽은 이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똥을 사용하였다. 특히 신의 분신인 샤먼의 배설물은 ‘좋은 똥’과 ‘복을 주는 오줌’으로 기능하면서 죄를 씻어주는 기능까지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신성화된 물질의식은 기독교인들의 성수 뿌

25) 정공이 초공 형제를 대하여 어스의 신방을 주키 아들도 구시하다가 운키 어스키 경육훈 슈 말을 전하고 우어 왈 “형의 아들의 형시 하여오” 왕은 대쇼하고 초공의 단엄하르로도 우음을 띄어 왈 비록 “제 숙성훈 듯하나 간간이 저런 비박지시 이시니 너의 악장이면 엇지홀년고” 진왕이 박쇼 왈 “조산이 친히 가 업대엿던들 조히 녀셔의 변슈를 맛볼노다 구시하라 혼 악뵈 죽히 그 옥을 바다뵈니 정화슈이 부명으로 가 슈고만하고 옥을 보니 윈민히리로다” 사랑은 듯고 미미한 우음이 옥면의 가득하고 어스는 부친의 희롱이 처음이라 가장 민망하여 괴운이 나죽하여 시좌하여시니 정공이 그 부형을 공경하는 레도를 볼스록 과이하여 웃고 왈 “내 집의 와 하는 거동은 하늘을 능히 밧달 듯 힘이 나의 다섯 아들을 능히 이기더니 금일은 저갓치 쇼출하여 우리 말을 도로혀 민망하여 저리하니 엇진 뜻이뇨” (...) 진왕이 (...) 만면의 기분 밧치 가득하여 굴오대 “이 아히 우리 안전의 저 거동이오 방외의 희롱이 실노 허언으로 아느니 아지 못게라 네 악장은 허언을 주출하여 보치미나” 어시 부복 대왈 “제정이 윈내 호히를 즐기시라 태반이나 보태어 알외어 드르시물 과에히시미니 엇지 저 곳의 가 그 대도록 방즈하리잇가” 정공 왈 “너희 하 민망이 너기미니 내 과히 전하르도 죄우라” 죄우 다 웃고 초공이 날호어 왈 “조산 형이 어른의 테위로 아들을 시켜 녀셔의 신방을 구시하르곤 군즈정이지 아니라 제 니르반 군즈의 변슈를 먹여 비호다 하미 울호니 지금 혼 그르슬 네 악장크 드러 시현하여 비호시게 하느니 이리듯 무레호 군즈도 있느냐” 정공이 일장을 대쇼하고 사랑은 겨우 우음을 참으니 어시 야야 말슴으로조츠 도화 낭협의 우음이 동하더라 정공이 어스를 집슈 쇼왈 “네 날을 변슈 주라 말을 가장 조화하거니와 스희는 반지라 네 괴신 조코 친명이라도 봉승치 못홀 줄을 아느다” 어시 미쇼 부답하고 일채 다 웃더라(<조씨삼대록> 5권, 98-101면)

26) 게리 솔 모슨·캐럴 에머슨, 앞의 책, 745면.  
27) 위의 책, 745면.

리기 의식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sup>28)</sup> <조씨삼대록>에서 조유현과 그 처가 식구들이 이전의 갈등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관계로 진입하기 위해 오줌을 뿌리면서 한 바탕 축제를 벌이는 듯한 소란스러움 속에는 똥오줌의 이러한 상징적 측면이 잘 반영되어 있다.

요컨대, 선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는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을 제어하기 위한 통쾌한 수단인 하나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의 한 형태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호쾌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 5. 결론: 대하소설의 똥오줌 모티프의 의미

본고에서는 대하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에 대해 악인형 인물, 우인형 인물, 선인형 인물과 관련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대하소설이 주로 상층에서 향유한 고급한 장르로서 똥오줌 모티프와는 거리가 있을 것 같지만, 상식적인 예상과는 달리 대하소설 속에도 똥오줌 모티프가 종종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히 악인형 혹은 우인형 인물과 관련해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형 인물과 관련해서도 똥오줌 모티프가 등장하고, 남성인물뿐만 아니라 여성인물과 관련해서도 똥오줌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였다. 이는 단편의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현상이다.

일차적으로 이들 모티프는 그 자극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웃음을 선사하고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똥오줌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악인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우인들의 탐욕 혹은 본능을 노출하며, 선인들의 익살스런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제공해주고 있었다.<sup>29)</sup>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똥오줌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똥오줌에 대해 표현하고 싶은 욕구와 연결된다. 최근에 똥오줌과 관련한 어린이 동화 시리즈가 인기를 얻고 있고,<sup>30)</sup> 방귀대장 뽕뽕이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이러한 경향에 가세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이다. 똥모양 장난감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또한 이를 입증한다.<sup>31)</sup> 똥에 대한 관심의 표출은 단지 본능에 충실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규범에 길들여진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예술작품을 통해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한다.<sup>32)</sup> “똥은 생명의 풍요로움이다. 그것은 정확히 말해 생명이 영속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생명을 수궁하는 것이다.”<sup>33)</sup>라는 주장대로, 똥오줌은 우리 몸의 일부이자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록 더럽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체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면서 이에 대해 말하고픈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데, 대하소설에서도 이런 욕구를 다양한 똥오줌 모티프를 통해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똥오줌 모티프는 각각의 인물별로 의미가 다채롭게 드러나고 있었다. 악인형 인물과 관련해서는 악행의 징치, 우인형 인물과 관련해서는 탐욕 혹은 본능의 표출, 선인형 인물과 관련해서는 악인의 퇴치, 타인의 교화, 타인과의 관계 개선 등과 연관되어 이들 모티프는 재현되고 있었다. 대하소설에서는 똥오줌 모티프가 지닌 더러움, 본능, 정화, 재생산 등의 다층적 의미들이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악인형 인물들을 통쾌하게 징치하기 위한 장치로서 똥오줌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인형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을 일깨운다든지 다른 사람과의 서먹함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등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30) 구체적인 예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똥 선생님』, 『똥침대장과 방귀쟁이 선생님』, 『똥마을의 비밀』, 『오라차차! 똥고집쟁이』, 『코끼리 똥』 등 무수히 많다.

31) 마르탱 모네스티에, 앞의 책, 422면, 427면 참조. 여기에는 모조품 똥덩어리뿐만 아니라 ‘똥메모지’, ‘똥달력’, ‘똥폭탄’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이런 똥상품들은 어린이들에게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32) 똥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위의 책, 412-430면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똥오줌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똥오줌 혹은 변기를 재료 혹은 소재로 그림이나 조형예술, 똥오줌을 소재로 한 노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33) 자크 리젠이 한 말이다. 위의 책, 417면에서 재인용하였다.

28) 마르탱 모네스티에, 앞의 책, 381면.

29) 예외적으로 선인형 인물 중 조성 등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의 경우에는 우스운 상황을 연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또한 매우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는 똥오줌 모티프가 지닌 자극적인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정립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똥오줌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였다. 더럽지만 잉태의 밑거름이 되는 똥오줌의 양가적 의미를 활용함으로써 똥오줌이 지니는 긍정적 의미를 한껏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선인형 인물과 관련한 모티프는 의의가 있었다.

한편, 우인형 인물을 통해서도 단지 우인형 인물의 우둔하고 탐욕스런 면모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의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먹고 배설하는 과정을 호탕하게 즐기는 모습에 대한 지대한 호기심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똥오줌 모티프는 대하소설 속에서 일종의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 장치의 하나로서 기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하소설의 주요 독자층인 상층은 예의격식을 철저히 지켜야 하였기에 소설 속 우인형 인물의 과격적인 배설 행위를 통해 그들의 억눌린 욕망을 대리 표출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살신성인적인 극기력을 발휘하여 남을 깨우치기 위해 똥물을 먹는 진지한 대목이 자리하기도 하지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허둥지둥 대다가 똥을 싸거나 똥독에 빠지는 악인, 이 욕에 눈이 멀어 똥오줌을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거나 남의 시선에 아랑곳없이 똥오줌을 싸는 우인,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을 똥독에 빠뜨리는 선인, 남에게 오줌을 갈기면서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계를 회복해가는 선인 등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대하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는 전반적으로 독자들에게 대하소설의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특성을 선명히 드러내 주는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타의 소설보다 더 큰 편폭을 지니면서 다양한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는 대하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들은 과연 어떠한 기반 하에서 생산된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고에서 살펴본 똥오줌 모티프와 유사한 사건들이 야담 등의 문헌설화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하소설에서 부각되고 있는 우인형 인물의 비열하거나 천연덕스러운 모습 혹은 선인형 인물들 간에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호탕한 배설 행위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야담에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우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로는 김씨 성을 가진 내시별감과 콩밭주인과의 사건을 들 수 있다. 김씨 성을 가진 내시별감의 말이 다른

사람의 콩밭에 들어가자, 내시별감의 종이 말을 붙잡으러 갔다가 밭주인에게 똥둥이질을 당한다. 이에 내시별감이 밭주인에게 호통치자 그 밭주인이 흘겨보면서 자신이 본래 이정승택 종인데 내시나 견룡방(牽龍房)의 무리들이 자신의 주인을 뵈러 올 때 무릎걸음으로 말똥 위에서도 슬슬 기기에 그들을 짐승취급 하였는데 지금 상대방의 모습도 그와 같다 말함에, 내시가 부끄러워하였다는 이야기이다.<sup>34)</sup> <옥원재합기연>의 이원외처럼 똥오줌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가에 빌붙기 위해 말똥 위를 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내시들의 비굴한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한편, 우인형 인물은 아니지만 소설 속 여성인물과 마찬가지로 똥오줌을 누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던 예를 체제공 어머니에 관한 일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체제공이 많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잔치를 열 때, 체제공의 모친이 방에서 요강에 소리 내어 오줌을 누고는 정승을 낳은 구멍으로 마음대로 오줌도 누지 못하느냐고 호령하였다는 이야기다. 물론 체제공의 모친은 젊었을 때 약혼자가 죽자 자신이 새로 혼인해야 하는 정당성을 임금에게 아뢰어 이를 허락받아 결혼하였던 여장부로서 우인형 인물과는 거리가 있다. 노년에 오줌을 누는 대목에서도 어리석은 면모가 아니라 그 당당한 태도에서 여장부의 기상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똥오줌을 배설하는 점에서는 소설 속 여성 우인형 인물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배설 행위에 대한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이야기로는 이씨 원님과 종혜(宗惠)와의 사건을 들 수 있다. 안성군(安城郡) 청룡사(靑龍寺)의 중 종혜와 이씨 성을 가진 관리가 사이가 좋았다가 소원해지자 종혜가 쥐똥에다 흰 가루를 바르고는 산중에서 법식대로 담근 귀한 된장이라 하면서 이씨 원님에게 보내어 골탕 먹인다. 이후 이씨 원님은 설사병이 났을 때 일부러 종혜를 불러 자기 엉덩이에 난 종기를 보아 달라 부탁하고는, 종혜가 그의 엉덩이를 살펴보는 순간 설사를 쏟아내어 종혜의 얼굴을 똥범벅이 되게 만든다. 이에 대해 종혜는 “『시경』에 이르기를 ‘덕에는 보답이 없는 것이 없다(無德

34) 『태평한화골계전』 38화에 나오는 사건이다.(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 1(박경신 대교·역주), 국학자료원, 1998, 247-249면 참조)

不韜’ 하더니 내가 쥐똥으로 던졌다가 개똥으로 그 보답을 받는구나.”라고 말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풀고 사이를 회복했다는 이야기이다.<sup>35)</sup> 이는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간에 똥을 매개로 장난치면서 그간의 갈등을 풀고 사이가 호전되는 이야기로 <조씨삼대록>의 조유현과 정운기 간의 사건과 흡사하다. 이 설화 외에도 유충관(柳忠寬)과 유진동(柳辰叟)에 관한 이야기<sup>36)</sup> 등 선인형 인물들 간에 똥오줌을 매개로 사이가 돈독해지는 설화가 전한다. 이처럼, 야담 속의 똥오줌 모티프는 대하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와 흡사한 면이 많다.<sup>37)</sup>

야담 외에도 실제 역사기록에도 똥오줌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한다. 일례로 고려 의종이 국사(國事)를 돌보지 않고 문신(文臣)들과만 어울리자 문신들이 교만해져 무사(武士)를 업신여겨 그 머리에 오줌을 누는 자까지 있었다는 기록,<sup>38)</sup> 이자겸(李資謙)의 측근인 내시 박심조(朴深造)가 궁궐에서 난이 일어나자 궁궐의 뒷간으로 빠져나와 똥오줌을 뒤집어쓰고 이자겸에게 가 궁중의 일을 고한 기록,<sup>39)</sup> 권채(權彩)의 아내 정씨(鄭氏)가 남편의 첩인 덕금(德金)에게 구더기가 든 똥오줌을 먹인 기록,<sup>40)</sup> 인선왕후가 소시 적 그 언니가 종기가 났을 때 오줌이 종기에 좋다는 말을 듣고 손수 오줌을 찍어 언니에게 발라준 기록<sup>41)</sup>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5) 『태평한화골계전』 77화에 나오는 사건이다.(위의 책, 412-414면 참조)

36) 유진동이 유충관을 갑자기 겨안아 누른 오물 속에 던져버렸는데도 유충관이 태연하게 웃으며 새옷으로 갈아입자 유진동이 그 도량에 감탄하여 막연한 벼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어우야담』 「인륜, 편에 전한다.

37) 본고에서는 『태평한화골계전』, 『어우야담』, 『촌담해이』, 『어면순』, 『속어면순』, 『명엽지해』, 『파수록』, 『청구야담』 등의 야담집을 검토하였고, 야담집 전체를 다 살펴보는 못하였다. 본고에서 미처 살펴볼 수 못한 야담집에서도 똥오줌 모티프 관련 사건들이 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대하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가 야담 속 똥오줌 모티프와 유사한 면이 많음을 검토할 수 있었기에 대하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를 야담과 관련지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물론 야담 등의 문헌설화 외에 구비설화에도 똥오줌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비설화 속 똥오줌 모티프는 문헌설화 속 똥오줌 모티프에 비해 대하소설의 똥오줌 모티프와의 유사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가 최근의 것도 있는 만큼 시대의 폭이 넓기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문헌설화를 주로 하여 대하소설과의 비교 논의를 전개하였다.

38) 『조선왕조실록』 성종 6년 2월 8일 조.

39) 『고려사절요』 9권, 인종 공효대왕 1 병오 4년 조.

40)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 8월 24일 조.

41) 『조선왕조실록』 현종 15년 9월 4일 조.

이런 점을 토대로 했을 때 야담 혹은 사서 등에서 곧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대하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하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는 야담, 사서 등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물론 이런 기록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똥오줌을 거름, 세제, 약제, 미용품 등의 다방면에서 사용했던 점<sup>42)</sup> 또한 소설 속에 똥오줌 모티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 다양한 문헌자료 혹은 현실경험들이 녹아들어 대하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는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하소설의 이러한 똥오줌 모티프는 단편의 소설 속 똥오줌 모티프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호질>, <예덕선생전> 등의 연암소설에서 똥오줌 모티프는 위선적인 양반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위해 혹은 하층민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건설하게 살아가는 생활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호질>에서 걸 으로는 점잖은 도학군자인 체 하면서 동리자와 사통하는 표리부동한 북곽 선생이 똥독에 빠지는 모습을 통해 그 위선적인 면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고, <예덕선생전>에서는 서울 근교에서 똥을 팔아 근실하게 살아가는 선글자의 모습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서민군상을 부각시키고 있다.<sup>43)</sup>

대하소설에서는 <호질> 등에서 볼 수 있는 신랄한 풍자는 보이지 않는다. 위선적인 인물이 그 죄의 대가로 똥독에 빠지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대개 악인형 인물들이 똥을 싸거나 똥독에 빠지는 양상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하소설에서는 <호질> 등에서와 같은 냉소적인 사회비판 의식보다는 보편적 이념틀인 권선징악적 논리에서 똥오줌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풍자의 층위와 관련지어 검토해 보면, 대상과 주제를 우습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 모욕, 경멸, 조소의 태도를 환기시키는 풍자에는, 크게 신랄

42) 김용국, 『입죽우주-한국의 똥·오줌 이야기』, 세계화장실협회, 2008 참조.

43) 이에 관해서는 기존에 연암소설에 관한 주요한 논의들을 통해 이미 다 정리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한 논의로는 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 박기석, 『연암소설의 심층적 이해』, 집문당, 2008 ; 이동근·황형식, 『한국문학의 풍자와 해학』,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4 ; 이석래, 『조선후기소설연구-풍자와 관련하여』, 경인문화사, 1992 등을 들 수 있다.

해서 인간사회에 대한 모멸에 찬 ‘주비널적 풍자’와 온건해서 공감을 주는 ‘호라티우스적 풍자’가 존재한다.<sup>44)</sup> 연암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냉소적인 ‘주비널적 풍자’에 가깝다면, 대하소설의 악인형 인물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온건한 ‘호라티우스적 풍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예덕선생전>의 똥오줌 모티프는 똥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대하소설에서의 선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와 약간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연암소설에서 실제로 똥을 팔면서 근실하게 살아가는 하층민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똥오줌 자체를 사실 그대로 진지하게 다룬 것과 달리, 대하소설에서 상층의 사람들 간에 농담이나 유희의 측면에서 똥오줌을 언급하거나 똥오줌을 갈기는 유쾌한 상황 속에서 주변사람들과의 갈등을 푸는 것으로 전개된다. 전자는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똥오줌 모티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라면, 후자는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똥오줌 모티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하소설 속 선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에서 오줌을 갈기고 오줌 범벅이 된 채로 축제를 즐기듯, 담소를 나누며 유쾌한 시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라블레식의 똥오줌 모티프를 보는 듯 흥겨우면서도 유쾌하다.<sup>45)</sup> 이는 대하소설이 단순히 딱딱한 경전류의 작품이 아니라 상층 혹은 여향인층<sup>46)</sup>의 여유롭고도 해학적인 취향을 고려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판소리계 소설과 비교해 보면, <홍부전>에서 아이들에게 똥을 먹이는 등의 온갖 악행을 일삼던 놀부가 중국에는 ‘박’에서 나온 똥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대하소설에서 악인형 인물들이 악행을 일삼다 똥독에 빠지는 양상과 많이 닮아 있다.<sup>47)</sup> 다만 <홍부전>에서

는 ‘박’이라는 환상적인 장치를 통해 놀부가 똥물에 빠지는 양상이 전개됨으로써 다소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대하소설에서는 악인형 인물들이 실제로 똥독에 빠지는 장면이 별다른 과장 없이 현실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대하소설에서 악인형 인물과 관련한 똥오줌 모티프를 좀 더 사실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악인형 인물들이 벌을 받는 장면, 특히 우스꽝스럽게 변모되는 장면의 현장감을 살리려는 의도와 관련 깊다 할 수 있다.

또한, <홍부전>의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맨 마지막에 악인형 인물을 징치하는 대목에서 똥오줌 모티프가 나오는데 반해, 대하소설에서는 주변적인 악인형 인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핵심적 악인형의 경우 그들의 악행이 한참 진행되는 중간 부분에서 이러한 똥오줌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호쾌하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대하소설에서는 작품의 중간에서 호쾌하게 웃으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하소설이 악인형 인물들의 중첩되는 악행의 점층구조로 구축되는 긴 서사축을 지니고 있는 점과 관련이 깊다 할 수 있다. 악인형 인물들의 연달은 악행의 중간 대목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한 템포 웃으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대하소설의 똥오줌 모티프의 주된 목적이 있다 하겠다. 더욱이 악인형 인물들은 대하소설의 맨 마지막 대목에서 대개 그 쫓값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악인형 인물을 놓고 호쾌하게 웃을 수 있는 대목은 중간의 똥오줌 모티프와 관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대하소설의 똥오줌 모티프는 연암소설, 판소리계 소설의 똥오줌 모티프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그것과는 차별되는 자신만의 색깔을 지니면서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똥오줌 모티프는 대하소설을 더욱 감칠맛 나게 하고 있다.

물론 본고의 논의는 대하소설 속의 주요한 똥오줌 모티프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대하소설에 나오는 모든 똥오줌 모티프를 총괄했다고 단정할

44) 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1996, 478-479면.

45) 라블레식의 똥오줌 모티프가 축제처럼 형상화된 점에 대해서는 미하일 바흐진, 앞의 책; 이환, 『프랑스 근대 여명기의 거인들(1)-라블레』, 서울대학교출판, 1997을 참조하였다. 물론 대하소설의 선인형 인물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똥오줌 모티프가 라블레의 작품에 나온 것처럼 과격적이고 혁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에 근접할 만한 부분들, 특히 똥오줌 모티프를 축제처럼 즐기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6) 대하소설의 주된 향유층은 상층이나 단순히 상층만이 아니라 여향인층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음은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에서 상론한 바 있다.

47) 이러한 대목들은 판소리계 소설과 대하소설의 소통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후 이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탐색해 볼 계획이다.

수는 없다. 본고에서 빠뜨린 부분들이 있다면 차후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 여러 역사기록 혹은 야담, 구비설화 등을 폭넓게 검토하려 했지만 그 전부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다. 똥오줌 모티프의 등장배경과 발달과정 및 장르 간 상호 영향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 본고에서는 일단 대하소설 속의 똥오줌 모티프의 특징과 의미를 대략적으로 간추린 것으로 의의를 찾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양문충의록> 한국학중앙연구원본 32권 32책  
 <옥원재합기연> 규장각본 21권 21책  
 <유씨삼대록> 국립중앙도서관본 20권 20책  
 <임씨삼대록> 한국학중앙연구원본 40권 40책  
 <임화정연> 구활자본6권 6책(『활자본 고소설전집』8·9, 아세아문화사, 1976)  
 <조씨삼대록> 서강대학교본 40권 40책  
 <현몽쌍룡기> 한국학중앙연구원본 18권 18책  
 <쌍성봉효록> 국립중앙도서관본 16권 16책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04면.  
 김용국, 『입죽오주-한국의 똥·오줌 이야기』, 세계화장실협회, 2008, 1-175면.  
 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1-293면.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1-449면.  
 박기석, 『연암소설의 심층적 이해』, 집문당, 2008, 1-208면.  
 이동근·황형식, 『한국문학의 풍자와 해학』,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1-265면.  
 이석래, 『조선후기소설연구-풍자와 관련하여』, 경인문화사, 1992, 1-339면.  
 이시연, 「스위프트의 “배설적 상상”에 나타난 여성, 몸, 소비」, 『영미문학페미니즘』, 16권 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8, 91-115면.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1-188면.  
 이 환, 『프랑스 근대 여명기의 거인들(1)-라블레』, 서울대학교출판, 1997, 1-207면.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1-210면.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2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81-97면.  
 \_\_\_\_\_, 「몸의 정치학: 「만신주봉공신록(萬身主封功臣錄)」」, 『문헌과 해석』 2000 겨울호, 문헌과 해석사, 2000, 168-179면.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6, 1-230면.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醜貌)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483-518면.  
 진선주, 「『율리시즈』에 나타난 배설적 풍자의 정치학」, 『제임스 조이스 저널』 7권 2호,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2001, 73-104면.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1-189면.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76면.
- 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1996, 1-541면.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1-200면.
- 케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바흐친의 산문학』(오문석 외 옮김), 책세상, 2006, 1-843면.
- 로널드 폴슨, 『풍자문학론』(김옥수 옮김), 지평, 1992, 1-262면.
- 마르탱 모네스티에, 『똥오줌의 역사』(임현 옮김), 문학동네, 2005, 1-431면.
- 미하일 바흐친, 『장편소설과 민중언어』(전승희 외 옮김), 창작과비평사, 1988, 1-476면.
- 카를 로젠크라츠, 『추의 미학』(조경식 옮김), 나남, 2008, 1-464면.
- 프랑수아 라블레, 『광타그뤼엘 제 3서』(유석호 옮김), 한길사, 2006, 1-316면.

## A Study on the Excreta Motif of River Novels

Han, Gil-yeon

Beyond our expectation, excreta motif advents now and then in river novels. Firstly, the excreta motif related to bad men gives jolly catharsis and shows their human aspect, by making them have bitter experience or fall into a chamber pot. Secondly, the excreta motif related to foolish men shows a contempt to them and envy at the same time. They care naught for an established form and even enjoy the pleasure of excretion by eating feces and urine or forget themselves. On the one hand, the excreta motif related to good men is shaping up to the aspect that they drink excremental water to shock and awake faults of another person or they mention about fecal matter or throw around excremental water to make cheerful atmosphere and break a nasty quarter with another person.

Even if we grant that the mention about excretion is anathema, interesting incidents related with excretion give pleasant laughter to readers. These excreta motifs in river novels show moderate satire and productive humor and role as the function of relax by mocking bad men. The excreta motif of river novels is in charge of an axis of river novel's satire and humor differently with the excreta motif of another novels.

Key words: classical novels, river novels, excreta motif, instinct, purification, satire, humor

접수일자: 2011. 8. 30  
심사기간: 2011.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1. 11. 20